

2023 서울 초수 합격수기

#점수

교육학 19 / 전공 53 = 72점

#배경

사범대 졸업 후 2022년 1년 올인 (제가 다닌 학교는 디자인계열 수업이 많아서 다른 미교과처럼 따로 임용을 위한 커리큘럼은 없었어요.)

대신 21년 말쯤에 거의 모든 합격 수기를 찾아보고 공부를 위한 준비를 마쳤기에 22년에는 오로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엄청난 내공이 있거나 엄청난 고득이 아니기에 제 수기는 초수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ㅎㅎ

#추천하는 스터디

기상(표현) 스터디 (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학교 지인과 7시에 전화로 표현스터디겸 기상스터디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 스터디 끝나고 좀만 더 자야지' 생각하지만 막상 전화로 5분 정도 문답을 하니 잠이 다 깨서 아침에 늦잠 자는걸 방지할 수 있었어요. 강제성을 부여하고자 벌금을 1000원씩 정해놨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월에는 아는 내용이 없다보니 전날에 공부하는 내용을 짧게 복기하는 시간을 가졌고, 3월부터 시험 날까지는 표현스터디로 진행했어요. 위상 기본서 순서대로 처음에는 짜잘하게 나눠서 했다가 중간부턴 6단원, 막판에는 3단원으로 나눠서 계속 반복했습니다!
-------------------	---

<p>오픈카톡 문제내기 스터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채팅으로 간단하게 문제 내고 맞추는 스터디를 3-8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총 두 번 했어요. 서로 듣는 강사들이 다르다 보니 새로운 내용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고, 그냥 책을 읽을 땐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암기하지 않아 놓치고 있던 부분을 챙길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 11월에는 원서접수 후라 지역을 다르게 1분씩 모여 진행했어요. 지역이 다르다 보니 서로 더 적극적으로 중요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하고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p>직강 복습 스터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직강에서 장지연 선생님께서 짜주신 스터디원들과 수업 후 그날 범위를 복습하고 놓친 부분 보충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같이 합격 수기를 쓰게 된 서울쌤과 같은 스터디였는데, 운이 좋게 정말 좋은 쌤들을 만나서 1월부터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 이론강의 때는 그 날 범위 복습과 보충, 문풀 때는 문제를 다시 훑어보며 실수한 부분을 공유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 같이 고민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진행했어요.
<p>문풀 확장/복습 (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쯤부터 위상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팁을 듣고 문풀을 복습하고자 56문풀부터 차례대로 하루에 3문제씩 말아서 문풀을 확장시켰어요. 문제에 나온 도판을 분석하고,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확장해서 전화로 번갈아가며 설명했어요. <u>주의할 점은 너무 깊게 파고들어가지 않는 점입니다!</u> -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혼자 하지 말고 최소 2명에서 나눠서 하는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말로 설명했기 때문에 기억에 더 잘 남았던 것 같아요.
<p>자기 전 스터디 (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 끝날 때쯤 교육학 문제를 3문제씩 내는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이 스터디도 역시 기상스터디를 같이한 지인과 했습니다! - 상반기는 22시, 하반기는 23시 정도에 공부를 마무리했는데, 밤에 스터디를 잡아두니까 그때까지 억지로라도 공부를 하게 돼서 공부 시간을 늘리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생활패턴

☞ 저는 집공을 했어요. 집 앞에 스카가 있음에도 그것조차 가기 귀찮아서 집공했어요. 자제력이 있는 분들은 집공 추천해요! 밥도 빠르게 먹을 수 있고, 쉴 때 책상 말고 차라리 침대에서 쉬면 더 효과적으로 쉴 수 있고, 자기 직전까지 공부 가능, 편한 옷차림과 얼굴 등등 시간&체력 절약이 엄청 됐어요!

☞ 평균 공부 시간 : 1-5월 10시간 / 6월-10월 13시간 / 11월 14시간

☞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히 쉬는 날을 가졌고, 5월에 일주일 여행도 다녀왔었어요. 일주일에 한번은 데이트하고, 쉬는 날 아닐 때도 종종 친구들 약속도 잡고 쉴 때는 꼭 쉬었습니다!

#공부스타일

☞ 저는 공부나 일을 좋게 말하면 전략적으로, 안 좋게 말하면 요령피우며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초수에 합격할 수 있었던 중요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깊다라고 생각되는건 과감히 넘어가면서 선택과 집중을 했어요. 가끔은 중요해도 제가 넘겨버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스터디를 하면서 보완이 됐어요. 너무 딥한 부분을 오래 잡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런 부분은 깔끔하게 넘겼습니다!

☞ 또 처음에는 그날 배운 범위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되는게 많이 없었어요. 이걸 모두 다 챙기려고 하지 않고 장쌤이 강조하신 대로 상 수준의 내용을 먼저 여러 번 보고, 이해가 안되는 건 넘어가고, 다른 날 다시 이해해보고 하며 내용의 폭을 넓혔어요.

#교육학

☞ 교육학은 인강으로 듣고 1.5-2.0 배속하면서 시간 절약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기본이론제외)

📖 저는 교육학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어요. 전공과 비교했을 때 비중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학20% 정도였어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했는데 결과를 보면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공

📖 전공은 1월부터 11월까지 모두 직강으로 수강했어요.

📖 **서브노트X**. 기본서에 단권화 +단권화에 넣기 힘든 큰 표나 자료는 따로 6공으로 모아서 봤어요!

📖 **(맨 밑에 사진 첨부) 단권화**는 사이드나 빈여백에 포스트잇/타이핑인쇄/수기작성 등으로 추가했어요. 3공해서 아예 페이지를 합치는건 책에 힘이 너무 없어보이기도 하고 복잡해 보일 것 같아서 인쇄소에서 제본한 스프링 그대로 빈 여백에 추가했습니다! 밑에 계획표에 나와있겠지만 3-4월은 심화책을 보충하고, 5-6월은 기본서 보충, 7-10은 문풀에서 다루는 새로운 개념 보충, 필독서는 간간히 시간될 때 읽고 보충했어요. 이때 폴테이프 추천합니다! 풀보다 더 깔끔하고 좋아요 ㅎㅎ 문제는 그대로 넣지 않고 추가적인 개념만 보충했습니다!

📖 저는 이 단권화한 기본서를 무한 회독했어요. 10회, 20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딱 몇회다 하기 힘들만큼 그냥 계속 회독하며 복습, 암기했어요. 어느 도판을 찾을 때 딱 어디에 있는지 알 정도로! 시험장도 이 기본서에 마지막까지 볼 것만 인덱스 붙여서 들고 갔습니다.

📖 **교육과정** : 저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외웠어요. 후반기 가면 문제가 나오든 안나오든 다 외웠다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지않고 엄청난 안도감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큰 장점이라 생각해요! 시간은 매일 아침 1시간씩 투자했고(안한 날도 있어요), 중등/고등일반은 그냥 반복 암기, 미창/미감비는 노래 청킹해서 외웠어요(진로선택은 평방유 안외움).

📖 **필독서** : 필독서는 조각사, 임영길판화, 클릭서미한미 정도 읽었어요. 조각사는 빠르게 다 읽었고, 판화랑 클릭은 넘길거 획획 넘기면서 발췌독 했어요!(근데 너무 획획 넘겼던건지 이번 시험에서 판화/클릭한미에서 나온 문제 틀렸어요. ㅎㅎ) 필독서는 가끔 기본서가 지루해져서 공부가 루즈

해질 때 읽으면 딱 좋은 것 같아요.

📖 **사전** : 사전은 단독으로 공부하진 않고 궁금한게 생기면 세미용, 현미사, 서미사 3권에서 찾아서 보고 보충했어요. 예시로 오브제 같은 단어는 사조별로 오브제 특징이 쪽 정리되어있어 이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봤어요! 또 서미사전은 특히 문풀 확장할 때 작가가 나오면 찾아서 작가 설명 읽어봤습니다. 너무 짜잘한 단어들은 안봤고 사전을 단독으로 시간을 써가며 공부하는건 안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 **기출** : 기출을 엄청나게 분석하진 않았고, 위상 기출분석 이론 듣고 복습, 최근 2개년 기출된 부분은 기본서 내용 옆에 작은 스티커 붙여놓고 그 부분은 가볍게 봤어요.(1-4월은 다 봄)

📖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로 2달 정도 짝스터디했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무조건 추천하진 않지만 저희는 나와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타이핑해서 정리했어요. 둘이 나눠서 해도 꽤 시간이 걸리더라구요. 대신 책 내용을 보고 타이핑하다보니 제가 아예 읽지도 않았던, 놓쳤던 부분도 발견하고 복습은 확실히 되었어요! 제가 짝스터디했다고 적은 스터디는 다 동일한 스터디원과 진행한 것인데요, 스터디를 하다가 혹은 평소에 마음이 잘 맞는 한 분을 만나게 된다면 그 분과 1년 동안 그 시즌에 맞는 스터디로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진행해보세요. 정말 시너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ㅎㅎ

#연간 스케줄-전공만 (기억이 정확히 안나서 참고로 봐주세요!)

	전공
1-2	•기본이론 수강/복습 •예습 책읽기 (기본서, 현미사-초반엔 복습할게 적어서 읽었었는데 큰 도움은 안됐어요. 헛

3-4	<p>도 모르는 상태라 다 까먹더라구요. 나중에 발췌독 하는게 더 도움돼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암기(중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화이론 수강/복습 •심화내용 기본서에 추가 •이전 단원 같이 복습 : 이때 사전이나 클릭으로 보충해서 단권화 •교육과정 암기(고등일반) : 중등도 계속 영역 돌아가며 인출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술탐색기출분석반 수강/복습 •체크리스트 범위 맞춰서 기본서 복습 •책1권 보충 (없는 내용만 뽑아서 단권화) •교육과정 암기(중/고+미창)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출분석반, 영역별 문풀 수강/복습 •계속 복습+단권화 : 이때 조각사, 판화 필독서 도서관에서 빌려서 봄 •교육과정 암기(중/고/+미감)
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전모의평가 수강/복습 •5-6월 문풀부터 차례로 복습하며 문제 확장 •2주 1회독 •교육과정 인출 (전영역 돌아가며 인출)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이널 수강/복습 •1주 1회독 / 막판 3일 1회독 •교육과정 인출

*1-3월에는 주 1회 4시간 집 앞 화실에서 인체소묘 다녔어요.(쌍초보) 4월부터는 공부에 집중

#2차

2차 점수는 면접에서 -0.8, 지도안에서 -0.3이었지만, 실기와 실연이 딱히 좋은 점수가 아니었기에 전체적인 경험/면접 위주로 쓸게요!

일단 1차 끝나고 바로 실기학원을 다니며 스터디를 시작했어요.

[실기] 저는 기초디자인을 전공했기에 인체소묘와 발상 모두 낫설었어요. 1-3월에 다닌 화실에서는 짧게 하루씩만 나가고 거의 3주에 그림 하나를 완성했어서 실력이 늘진 않았어요. 그래도 아예 처음 해보는 실기였기에 2차 준비 전에 한 번은 해봤다? 정도의 안도감은 가질 수 있었어요. 1차가 끝나고는 노량진에서 주5일 실기를 나갔고, 1차 발표가 난 후에는 주6일을 나갔고 스터디가 없는 날은 종종 아침 타임도 나갔어요. 저처럼 실기를 해보지 않았을 경우에 1-4월에는 다녀보시는걸 추천합니다ㅠ! 2차 준비하면서 후회 많이 했어요ㅠㅠㅠ그리고 이때부터 아예 노량진 학원을 다니는걸 추천해요. 좀 더 전략적으로 잘 알려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면접] 다른 분들과 달리 발표 전에 저는 실기와 면접을 둘 다 많이 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잠을 많이 못 잤어요ㅠㅠ그치만 초반에 열심히 해둔 결과 막판에는 오히려 여유롭게 지냈어요. 1차가 끝나고 실기를 주 5일 나감에도 면접 스터디를 주 3일 대면으로 진행했어요!(정리본만들기는 각자 따로 시간 써서) 2일 정도 할 생각이었지만 스터디원분들이 3일 하자고 하셔서 어쩔 수 없었지만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스터디는 2차 경험이 없는 초수였기에 아무도 꺼주지 않았고ㅠㅠ결국에는 제가 직접 스터디 모집 글을 올려 구했어요! 감사하게도 2차를 준비해본 분들이 지원해주셔서 잘 진행되었습니다. 초수분들 안구해지면 하루라도 빨리 직접 글 올려보세요! 초반에 구할수록 더 열정적인 쌤들이 많은 것 같아요. ㅎㅎ

방식은 초반에 파트를 나눠서 정리본을 만들었어요. 정리본은 굳이 추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하철이나 오고가는 시간에 책 안들고 다니고 아이패드로 볼 수 있다는 점은 편했습니다! 3일 대면하는 날에는 모의 면접을 진행했는데, 서울 기출부터 시작해서 면접책들에 있는 모의문제를 풀었어요. 4명이서 모의 면접-피드백으로 진행했습니다. 초반에 암기가 잘 안되어 있을 때는 집에서 답변 써와서 진행했고, 3-4주차부터는 직접 그 자리에서 구상하고 면접까지 했어요. 1차 발표 이후

에는 주4일 진행했고, 이때는 시간을 절약하고자 3명에서 진행했습니다!

시험 날에는 내용상으로 핀트가 나간 것 같고 같은 말 계속 반복한 느낌이라 최소 5점은 깎일 줄 알았는데 0.8점 깎여서 놀랐어요.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시간배분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 것(실제로 감독관분들이 중간중간 시간 체크를 하세요.), 최대한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기, 자신감있게 큰 소리로 말하기, 추가질문 말해주실 때 하늘이나 땅 안보고 말해주시는 면접관 응시하고 있던 것 등등 내용은 크게 잘 모르겠고 태도 측면에서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제가 면접 준비했을 때 궁금했지만 정보를 찾기 어려웠던 것들! (서울기준)**

☞ 구상지 따로 주나요? / 아니요. A4용지에 문제 크게 뽑혀있어서 생각보다 답안 구상할 자리가 적었어요. 수업실연 때도 구상시간에 구상지 주는 걸로 알았는데 지도안 복사본만 주셨어요. 이부분도 연습 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시계 있나요? / 네. 아주 잘 보이고 23년도 시험은 카운트다운이었어요.

☞ 중간에 3분 남았다고 말해주나요? / 말해준다는 수기를 본적이 있었는데 23시험에서는 3분남았다는 종이를 10초 정도 들어주셨어요.

☞ 색깔 펜 써도 되나요? / 아니요. 모나미 검정 볼펜 제공해주셨어요.

☞ 구상문제 6분, 즉답형, 추가질문2 각 3분이라고 나와있는데 지켜야 하나요? /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구상형 2문제 끝나고 면접관 3분 모두 타이머를 확인하셨어요. 저는 구상형1번에서 좀 길어져서 구상형2번을 간략하게 하고 6분을 맞췄는데 가능하면 시간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 옷은 뭐 입나요? / 수업실연 때는 집에 있는 하객룩st 검정&연핑크 원피스 입었고, 면접 때는 서울시 취업날개 서비스이용해서 대여했어요. 검정H라인 원피스에 어두운회색자켓입었어요. 서울 거주하시면 취업날개 서비스 이용해보세요!! 폴세트로 구두까지 다 대여 가능해요.

☞ 머리는 꼭 머리망까지 해야 하나요? / 저는 수업실연때 반묶음, 면접때 그냥 하나로 묶었어요!

☞ 시책 연계 꼭 해야 하나요? / 제가 스터디 준비할 때 스터디원들이 본 합격 수기마다 말이 다르더라고요. ㅎㅎ모든거에 하면 안좋다, 다 해서 만점받았다, 연계 안하고도 만점 받았다. 등등 의견이 다양한데, 실제로 저는 추가질문까지 총 5문제 중에 시책 내용은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1개 밖에 언급 못 했어요. 올해 문제가 좀 그런 경향이긴 했지만요! 저희 스터디원들이 생각했던 점은 그냥 시책에 있는 용어만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충분한 부연 설명과 문제와

잘 어우러지게, 실제적인 사례를 덧붙여 설명하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실연]

실연은 학교 동기, 선배들과 진행했어요. 학부 때 수업실연을 여러번 경험했던 지라 크게 부담은 없었습니다! 1차 끝나고부터 실기시험 끝나기까지는 주1회 오전9시-오후3시까지 2타임 씩 진행했고, 실기 끝나고는 매일 만나서 1타임 씩 했습니다.

나만의 틀을 만들어서 적용시키는 연습을 했어요. 순회지도 시에 '갈등이 있는 모둠-절충안 찾아 주기/빨리 끝낸 모둠-채색까지 시키기/조용한 모둠-발언 순서 정해주기' 이런식으로 설정하는 틀도 있고, 수업 도입시에 사용할 멘트 틀, 학생 이름 등등을 짜서 적용했어요.

[지도안]

지도안은 따로 스터디 하지 않았어요! 위상 2차강의에서 주신 자료들을 읽어보고, 수업실연 스터디할 때 써보는 지도안으로 끝냈어요.

#마무리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기본서를 무한회독하고 암기하는거예요! 책의 구조를 다 외울만큼 회독하다보면 어느새 암기가 다 되어있을거예요. 또, 1월부터 4월까지의 이해가 잘 안되는게 많은데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제로 10월, 11월이 되어서야 이해가 된 부분도 많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보다 보면 꼭 합격이 가까워질거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의 합격수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다음 페이지부터는 단권화 어떤식으로 했는지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